

## 5월의 청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응원, ‘인북스테이션’ 취업행 열차 첫 기적 울렸다.

- 구직 준비도별 3개 트랙(성장·기회·회복) 체계로 청년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 경인여자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지역 산·학·관 협력 기반 프로그램 구성
- 지역 우수기업, (주)듀크린 현장 견학·직무특강을 통한 실무 연계 강화



▲ (주)듀크린 기업탐방

인천북부고용센터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의 구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인 「‘인북스테이션’ 청년 취업행 열차」를 5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최근 고용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정체되면서, 구직자의 스펙과 취업 준비도에 따른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청년들이 '경력 부족으로 인한 취업 실패'와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경력 공백'의 악순환에 빠져 구직을 단념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기존 구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취업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들의 구직 준비도와 특성에 따라 ▲성장 ▲기회 ▲회복의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이력서 작성법 및 비즈니스 에티켓 특강(경인여자대학교)

이번 5월 과정(5.11~5.12 진행)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들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무 정리 기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취업 경쟁력 제고 △이력서 작성법 및 비즈니스 에티켓 마스터 등 최신 채용 트렌드가 반영된 심도 있는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지역 내 우수기업인 '(주)듀크린'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인사담당자와의 질의응답(Q&A)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론과 실무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실효성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 (주)듀크린 현장견학 및 직무특강

인천북부고용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밀착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수료 청년들에게는 '사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1컨설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핵심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고용센터의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통한 심층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인북스테이션' 청년특화프로그램은 이번 5월 '성장 트랙'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신입 구직자 대상의 '기회 트랙', 10월에는 자립준비 및 고립·은둔 청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트랙' 등 총 3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확대 운영된다.

박해정 인천북부고용센터 소장은 "청년들은 1년 중 가장 찬란한 5월과 같지만, 정작 본인들은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인북스테이션'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협업하여 마련한 진심 어린 응원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탐방 등 생생한 현장 경험이 청년들의 꿈을 향한 확신이 되길 바라며, 행사 이후에도 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책임자	센터소장	박해정 (032-540-5601)
		담당자	팀장	이장근 (032-540-5823)

